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영국계 네덜란드 보험사, 정부 구제금융 출구 요청

- 영국 Aviva의 계열사인 Delta Lloyd 보험사는 네덜란드 정부가 1년 전 금융위기 시 단행한 구제금융에 대해 출구전략을 검토하여 보험사간의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여야 한다고 주장함.
 - Delta Lloyd는 그간 네덜란드 정부의 금융위기 대응은 적절한 조치였음을 인정하지만 현재 구제금융의 도움으로 매력적인 보험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보험사와 계속 경쟁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쟁이 조속히 회복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.
 - 이와 같은 Delta Lloyd의 주장에는 몇몇 네덜란드의 보험사들도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짐.
- Delta Lloyd의 CEO인 Niek Hoek는 또한 수년 동안 몇몇 금융 그룹들이 국유화된 상태로 운영되는 것 역시 자유경쟁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함.
 - 이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는 현재 ABN Amro와 Fortis Bank Netherland를 국유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출구전략을 갖고 있다고 밝힘.
 - 그러나 두 은행계 그룹간의 성공적인 합병을 성사시킨 이후 2011년 정도에 민영화하겠다는 계획은 합병이 난항을 보임에 따라 연기되고 있는 상황임.
- Aegon, ING 등 몇몇 보험그룹 등은 그들에게 주어진 제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구제금융금의 조속한 상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짐.
 - Aegon은 뒤늦게 깨달은 것이지만 1년 전 30억유로의 지원 없이도 금융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상환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밝힘.
 - ING 역시 조기 상환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ING가 구제금융 지원금을 향후 2년 안에 조기상환할 경우 50%의 위약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조기상환에는 선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(Financial Times 10/8)